

사설

신도교육 성공하려면

한국불교 최대종단인 조계종이 98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급진한 개혁을 신도교육의 해로 선포했다. 사실 우리 불교계는 이번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도들에 대한 교육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념이 생명인 집단이 교육을 소홀히 할 때 집단은 자기 동일성이 형성될 수 없으니 자연 구심력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 따라서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신도 교육은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불사의 1차적 의미는 교육을 통해 신도들을 불교 사상으로 정신무장을 해나가는 의식화 작업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 교계에서는 불사의 1차적 의미가 불상을 조성하고 건물을 짓는 의형적 불사에만 치중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전도현상은 어느 종단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본다.

조계종이 지금까지 신도 교육의 필요성을 천명해 왔었고 종법 등에도 신도 교육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근본원인은 무엇인지 신도교육의 해 설정과 사업진행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그 까닭이 교육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차질이 있었던 때문은 아닌지 차체에 다시 한번 냉철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불교는 1천만명의 불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1천만명의 불자는 어느 특정 종단에 속한 불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불교계 모든 종단에 소속된 중도 모두를 말한다.

따라서 어느 종단에서 신도교육을 계획할 때는 자기 종단에 속한 중도에 대한 교육이 전 불교계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1천만 불자가 모두 내 종단에 소속한 신도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대단

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종단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신도 교육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비불자나 유사불자를 의식화된 불자로 만드는 불교세의 확산이요, 2차적으로는 그들을 내가 속한 종단의 종지를 받드는 중도로 확보하는 작업이라고 본다.

만약 종단에서 시행되는 신도교육이 종지의 선양이란 핵심을 간과한다면 그런 신도 교육은 알맹이가 없는 교육이라 할 것이다. 교육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종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난맥상은 종지를 선양하는데 집중되지 않고 전불교를 커버하려는 듯한 방향 설정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조계종은 통합종단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거 정화의 와중을 수습하는 행정적인 문제이지 종지마저 통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종단의 신도교육은 자종의 종지를 선양하려 할 때 중도들로서의 정체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종지의 교육은 수행 체계에 대한 교육이라 볼 때 과연 조계종이 그 점에 대해서 통일된 입장이 있는가를 돌아볼 일이다. 이제 종단의 신도교육이 성공을 거두려면 교육의 일차적인 주제인 승가 구성원이 교화에 대한 통일적 인식과 수행 체계에 대한 통일적 입장이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신도교육이 단순한 이론강의에 머물러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 부처님의 바른 법이 삶의 꿈을 이기게 하는 생활속의 지혜로 다시 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자들에게 다가가는 신도교육이 되도록 방향설정을 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한국불교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신도교육의 해가 되길 기대한다.

“통일 기틀마련에 힘 보태자”

조계종·진각종 울 중무계획 발표
北 사찰복원 기초위 구성키로 [조계종]
통일이후 대비 매년 2억 조성 [진각종]

조계종과 진각종이 '통일기금 조성' 등 통일을 대비한 각종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조계종과 진각종은 13일과 14일 각각 발표한 금년 중무계획을 통해 통일을 대비한 중책을 발표해 주목 받았다. 두 종단의 통일대비 사업은 △통일기금 조성 △북한사찰복원 기초위원회 조직 △북한동포돕기운동의 지속화 등으로 요약된다.

조계종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기금과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모금회 등을 통해 조성되는 기금 중 일부를 통일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와 통일기금 조성위원회를 확대 개편, 통일운동과 북녘동포돕기, 북방포교의 거점조직으로 삼는다는 것이 조계종의 방침이다. 북한사찰복원을 위한 기초위원회를 조직해 북한지역의 전통사찰 현황을 파악하고 통일후 복원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조계종의 대북정책 중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구호사업과 북

지사업등을 매개로 북한불교와의 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점차 남북교차 성지순례, 사찰복원지 원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두고 있다.

진각종은 올해부터 매년 2억 원 규모의 통일기금을 종단에 산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적립되는 통일기금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포교와 불사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

북한지역에 국수공장을 건립키로 하는 등 북한지역 포교사업에 박차를 가해 온 진각종은 통일기금 조성과는 별개로 북동포 돕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 대북포교의 기틀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IMF 체제 속에서 종단 살림을 지속적으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서 마련된 두 종단의 통일대비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북동포돕기 운동의 활성화와 통일 이후의 전방을 위한 장기적 포석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교계의 여론이다.

(임연태·한명우 기자)



경승과 경철 등 5백여명이 모여 나라 안정을 위한 기원법회를 열었다.

“나라와 시민 안정” 서울경승단 15일 법회

서울지방경찰청경승실(실장 경승)은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내식당에서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와 시민의 안정을 위한 서울경승단 기원대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는 동광스님의 개회

사에 이어 대한불교경승단 총재 월주스님의 법어, 노원경찰서경승실장 해사스님의 기원문 봉독, 감사패(김진중 서울경찰청 운영위원, 북부경찰서 신재열경승법사 등이 수상) 전달, 서울지방경찰청 이필우 청장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

월주스님은 법어에서 "자리아타(自利利他)를 실천, 경제난극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평불협 美동부지부 추진 北국수공장 운영금 모금

평불협 미주본부(회장 도안스님)는 9일 LA 관음사 내 한국 불교문화원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뉴욕, 워싱턴, 시카고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동부지부를 결성키로 했다.

보스톤 문수사 주지 도봉스님을 주축으로 3월말 발족 예정인 평불협 동부지부는 각 사찰과 교민들을 중심으로 금강국수공장 운영에 필요한 성금모금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법타스님은 "국수공장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대도시가 밀집해 있는 미국 동부지역의 지부를 시작으로 점차 지부결성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사찰 860곳 문체부, 97년 현황발표

경북지역 162곳 '최다'

97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은 8백60개소이며 이중 8백37개소가 문체부에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문체부가 95년 이후 전통사찰 지정 변동사항을 정리해 발간한 <전통사찰 현황>에서 밝혀졌다.

<전통사찰현황>에 따르면 지정된 8백60개소의 전통사찰 중 미등록된 곳은 서울 봉인사 등 23개소, 대개 사찰분류나 해당 사찰의 사정에 따라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북이 가장 많은 1백6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북 1백2개소·경기 89개소·경남 87개소·전남 80개소·충북 79개소·충남 76개소·서울 55개소·강원 42개소 순.

불교방송 사장에 성낙승씨

20일 취임... 예산 등 운영공개 의지 밝혀

불교방송 신임사장에 성낙승씨(국제방송교류재단 이사장)가 선임, 20일 오전 10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취임한다.

성이사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방송의 안정과 진정

한 종교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이사장은 "경리예산문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분기별 내지는 2개월에 한번씩 이사회에 재정상태와 운영을 공개할 방침"이



라고 말하고 "불자 기업체 중립학교 신원단체 사찰 불교인 등 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등 불교계역 구축을 위해 발로 뛰는 사장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약 력

- 35년 청년생
- 고대 법학과 졸업
- 61-65 문공부
- 88-90 중무실장
- 90-93 공보처 기획관리실장
- 93-96 프레스센터·한국방송개발원·문예진흥원 이사
- 96-98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 현재 동국대 교수
-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이사장

불교대학 '법사' 명칭 "논란"

조계종, 등록취소 통보... 법사대학, 등록증 반납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이 '법사' 명칭을 사용한 불교대학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했다. 이에 따라 재가자에 대한 법사호칭 부여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포교원은 12일 회의를 열어 한국불교법사대학(대표 지일)이 '법사' 호칭을 사용해 신인생모집 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 '법사'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2~3차례 시정권고하고 시정되지 않을시 등록을 취소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

을 한국불교법사대학측에 통보했다.

포교원은 등록취소 이유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한국불교법사대학'이라는 명칭 사용 △포교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법사 품위와 '법사'를 수여하며 △포교원 및 사찰 개원시 적극 지원을 밝히고 있어 신형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법대학측은 "재

가와 출가가 동등하게 불교지도자로서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며, '명칭을 문제삼아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재가지도자 양상을 뒷받침해야 할 포교원의 설립취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14일 등록증을 반납했다.

법사 호칭과 관련, 승가에서는 스님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이라며 재가포교사들을 법사로 부르는 일반적인 관행에 대해 마땅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면서 승속을 막론하고 법사가 될 수 있다는 경건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본보 127호 참조> <윤>

조계종토지 5백만여평 증가 5년새...재무부 전통사찰 466곳 조사

지난 93년 이후 5년간 조계종 소속 사찰토지가 5백만여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지난해 4월부터 전국 4백66개(전체의 34%)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재무부에 따르면 조사대상 4백66개 사찰중 235개 사찰에서 2천3백78필지 약 1천여만 평의 토지가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관리미비로 유실된 토지가 적지않아 1백54개 사찰의 1천5백28필지 4백92만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은 내부부 지적재산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찰토지 소유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포교원에 사과 시카고지국 종교평향건

중앙일보는 조계종포교원이 보낸 '중앙일보사 종교평향 사례에 대한 해명요구' 공문과 관련(본보 14일자 23면), 12일 포교원에 사과의 뜻을 표하고 "이후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시카고지국장이 불타사주지 정모스님을 방문해 사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대만평

박구원

부처님 마음도

대법원의 해인골프장 사업승인취소 처분 기각판결에 대한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모임의 입장

“해인골프장 건설은 민족의 성지 가야산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반문화적 반환경적 처사입니다.”

팔만대장정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 모든 인류가 소중히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할 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만대장정이 소장돼 있는 가야산 해인사 옆에 '해인'이라는 이름의 골프장이 건설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막힌 일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판결을 내려 뜻있는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대장경만이 8백여년간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장경각 주변의 기후, 온도, 습도, 통풍 등에 있어서 천연적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근에 48만평이라는 엄청난 면적의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장경각 주변의 천연적인 기후 및 자연조건은 변화가 불가피하고 대장경관의 보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가야산은 정부가 국민들이 영속적으로 자연의 혜택을 누리도록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특별히 보존하기로 지정을 한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 및 역사적 대상물과 그 안의 야생생물을 보전하고 현 세대의 국민들에게 자연의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자연경관을 훼손됨없이 물려주기 위한 생명의 최후 보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 모두를 위한 국립공원이 소수 특권층의 유희를 위한 골프장으로 훼손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8년 1월 14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모임

- #### 1월 14일 대총사 주관 본사주지모임 결의사항
1.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사주지모임은 해인골프장 백지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 가야산국립공원해인골프장건설반대국민대책위원회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해인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성명서 별도 첨부)
 2. 경제난극 타개 및 실직자 위안을 위한 기도를 병행하고, 근검절약과 금모으기 운동, 자원재활용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또 정부는 실직자 구제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기업은 최대한 노동자의 해고를 억제하며, 국민은 난국타개를 위한 고동분담을 기꺼이 수용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실직자 가정을 방문, 위로법회를 병행하고 직장앞선에 최선을 다한다.
 3. 북한 사리원에 세워지는 금강국수공장에 대한 범종단적 지원을 촉구하며 이에대한 본사주지모임 차원의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순분자들의 안정된 생활정착에 본사주지모임이 힘을 모은다.
 4. IMF환파에 따라 각 사찰의 재정이 극심히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총무원등 중앙종무기구의 기구축소를 집행부에 촉구 건의한다.